

## 커티스 야빈: 사상과 이론의 심층 분석

커티스 야빈(Curtis Yarvin)은 필명 “멘시우스 몰드버그(Mencius Moldbug)”로도 알려진 미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자 정치 사상가로, 2000년대 후반 블로그를 통해 **신반동주의(neoreaction)** 또는 “암흑 계몽(Dark Enlightenment)”이라 불리는 급진적 반민주주의 이념을 주창한 인물입니다 [1](#) [2](#). 그는 현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과 대안적 정치체제 구상을 내놓았으며, 이러한 급진 이론은 실리콘밸리 기술 엘리트와 우파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3](#) [4](#). 이하에서는 야빈의 철학과 정치사상의 전반적 내용, 기술 발전과 사회 구조에 대한 그의 견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시각, 그의 최근 행보와 프로젝트, 그리고 야빈과 연관된 인물들의 사상적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1. 야빈의 철학과 정치사상 개요: 이론과 “프랙시스(praxis)”

**반민주주의와 네오모나키즘** – 야빈 사상의 핵심은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옹호로 요약됩니다. 그는 자유주의적 민주정이 “비효율적이고 파괴적인” 체제이며 궁극적으로 혼란과 폭정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5](#). 야빈은 진보 엘리트들이 장악한 **미디어-학계-관료** 복합체가 사회를 좌경화시키는 “**대성당(The Cathedral)**”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이 **이념적 혜개모니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6](#) [7](#). 2008년에 몰드버그라는 가명으로 발표한 “진보주의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그는 “**민주주의, 헌법, 법치주의의 청산**”과 함께, 정부를 “강력한 무력으로 무장한 초수익 기업”으로 **완전히 재부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7](#). 요컨대 국가를 주식회사처럼 개편하여 최고경영자(CEO)에 해당하는 단일 군주가 전체를 통치해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8](#). 그는 실제 예시로 **스티브 잡스나 마크 안드리슨 같은 인물**이 그런 CEO-군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9](#), 이는 정치권력이 유능한 기술기업 지도자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기술-군주제적 발상을** 드러냅니다. 새 체제하에서 정부는 공립학교 매각, 대학 해체, 언론 폐지, 대규모 관료 해고 등 극단적 개혁을 단행하고, 필요시 “문명으로부터 이탈된(decivilized) 인구”를 투옥하는 등의 강경책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 이러한 급진 구상 때문에 야빈은 “**테크노 파시스트**”란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그는 스스로를 “**왕당파(Royalist)**”, “**야고바이트(Jacobite)**”, 즉 근대 민주주의 이전 왕정질서의 지지자라 칭하며 차별화했습니다 [11](#).

**이념적 영향과 이론적 기반** – 야빈은 자신의 사상을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건설**”로 규정하며 과거의 여러 보수반동 사상을 재조합했습니다 [4](#). 그는 한때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이론에 관심을 가졌으나, 토마스 칼라일의 사상에서 영감을 얻어 “영웅적 지도자의 권위주의 통치”를 정당화했습니다 [12](#). 또한 **이탈리아 엘리트 이론**(파레토 등의 이론)에 기대어, 현대 민주사회에서 이념 생산 집단인 언론·학계·관료제(그가 말하는 “**대성당**”)가 스스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통설을 퍼뜨리고 인맥을 통해 권력을 재생산한다고 분석했습니다 [13](#). 대중에 기반한 정치 참여는 결국 이 “**대성당**”에 조종당하기 때문에 진정한 변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그는 **교육기관과 언론기관의 “청산”**을 통해 기득권 이념질서를 뿌리뽑고, 새로운 권위체제가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4](#). 다만 이를 실행할 때 기존 직원들에 대한 보복은 지양하고, **연금 제공과 명예로운 퇴직을** 조건으로 협조를 이끌어내는 비교적 유화적인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5](#). 한편 야빈은 **민주주의 자체도 일종의 허구**라고 보았습니다. 형식상 민주 절차가 있어도 실제로는 소수 엘리트가 조종하는 **과두제적 지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6](#). 그는 차라리 이 사실을 공식화하여 **공개적 엘리트 통치**로 전환하는 편이 정직하고 효율적이라고 역설했습니다 [17](#). 요컨대 야빈의 대안 체제는 “**주권을 지닌 주식회사**”들로 구성된 분권적 세계 질서로, 각각의 미니국가는 주주들이 투표로 이사회를 뽑고, 이사회가 전문 경영자를 임명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18](#). 그는 이러한 **패치워크(patchwork)** 방식의 주권 미시국가들이 기존의 “망가진 역사적 산물인 국가들”을 대체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두바이와 싱가포르를** 현대적 모델로 언급했습니다 [19](#). 결국 야빈의 지향은 **탈(脫)민주주의적 질서** 또는 **신군주제**로 요약되며, 이는 17~18세기 구체제에 뿌리를 두면서도 21세기 기술 시대의 효율과 결합된 독특한 “**탈자유주의(postliberal) 반동**”으로 평가됩니다 [20](#) [16](#).

**“프랙시스” – 이론의 실천 전략** – 야빈의 사상은 주로 이론적 저술로 전개되었지만, 실천(praxis) 측면에서의 언급이나 암시는 그의 글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는 민주주의 체제 내부에서 전통적인 **대중운동이나 투표**를 통해선 근본 변화가 어렵다고 보고, **엘리트 중심의 상향식 혁신**을 모색했습니다. 이를테면 야빈은 민주제의 허점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독재자**

를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헌법상 대통령은 4년 임기의 “선출된 독재자”와 다름없는데도 관행적으로 삼권분립에 얹매여 있다고 진단하며, 유능한 대통령이 등장한다면 관행을 깨고 행정부 권한을 최대화함으로써 사실상의 군주제적 통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sup>21</sup> <sup>22</sup>. 다시 말해 “민주주의를 통해 군주제를 수립”하는 역설적 방법을 언급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나 고대 로마의 사례를 인용하며, 비록 “왕”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더라도 강력한 지도자가 비상한 권능을 행사하는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up>23</sup>. 야빈은 이러한 급진 전환이 합헌적(合法)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Marbury v. Madison* 같은 사법심사 전통마저 재고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sup>24</sup>. 또한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면 이전 체제의 정책·인력·질서를 전면 교체해야 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절대적 공공정책(absolute public policy)” 청사진을 미리 연구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up>25</sup> <sup>26</sup>. 그는 연합군의 전후 독일 통치(AMGOT)를 예로 들어, 구체제를 일거에 폐지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한 선례를 들며 “하드 리셋(hard reset)”에 준하는 사회 개조를 상정했습니다 <sup>27</sup>. 요컨대 그의 프랙시스는 하향식 엘리트 교체와 체제 리셋을 통한 급진 개혁의 로드맵을 그리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한편 야빈은 단기적으로는 **지적 운동의 형성**을 실천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철학자와 군중의 결합”이 변혁에 필요하며, 인터넷이야말로 새로운 군중을 규합할 최적의 장소라고 보았습니다 <sup>2</sup>. 실제로 그의 블로그를 통해 전세계 리버테리안 기술인, 불만을 품은 관료, 합리주의 지식인 등이 연결되었고, 이들은 온라인에서 **신반동주의 운동의 충격부대** 역할을 했습니다 <sup>2</sup>. 야빈은 이들에게 매트릭스 영화에 빗댄 “레드 필(red pill)”을 권유하며, 기존 이념의 달콤한 거짓을 버리고 엄혹한 진실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sup>28</sup>. 이러한 각성 서사를 통해 그는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유능해져서 힘을 잡은 뒤 세상을 통치하라”는 3단계 구호 – “**유능해질 것, 권력을 받아들일 것, 통치할 것 (Become worthy. Accept power. Rule.)**” – 를 내세웠습니다 <sup>29</sup>. 이는 야빈이 설계한 엘리트 중심 변화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슬로건으로, 신반동주의 진영에서 사실상의 행동 강령처럼 인용됩니다. 요약하면, 커티스 야빈의 사상은 **반동적 정치철학과 공학적 통치관**이 결합된 독자적 이념이며, 그는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경로로서 **엘리트의식 고취와 체제 내 쿠데타적 개혁**을 구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up>20</sup> <sup>29</sup>.

## 2. 기술 발전과 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견해: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 엘리트주의

**컴퓨팅 메타포와 “엔지니어 국가”** – 프로그래머 출신인 야빈은 기술 발전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 구조를 재설계 할 열쇠**로 인식했습니다. 그는 **국가를 하나의 소프트웨어/컴퓨터에 비유**하는 독특한 관점을 자주 피력하는데, 예컨대 미국 헌법을 “성문 신성 문서이자 동시에 자체 업데이트되는 운영체제(OS) 또는 블록체인 계약”이라고 묘사했습니다 <sup>30</sup>. 민주정부의 교체를 컴퓨터를 재시동(restart)하는 행위에 비견하며, 현 미국 민주주의가 이미 “해킹당한 운영체제” 상태이므로 점진적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고 아예 새 시스템으로 갈아엎는 ‘부트업(booting up) 후속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sup>31</sup>. 이처럼 **디지털 기술 개념**을 정치에 접목한 야빈의 언어는, 현대 관료국가를 경직된 레거시 소프트웨어로 보고 이를 최신 기술 감각으로 리팩토링(refactoring)해야 한다는 신념을 반영합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21세기 반동주의를 “**모던 공학 마인드와 고전적 전제정치 사상의 결합**”이라고 정의하며, 기술자적 사고를 정치 설계에 적용하는 것을 이념적 과제로 삼았습니다 <sup>32</sup>. 이러한 시각에서 야빈은 정부 운영을 기술적으로 최적화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통치를 강조하는데, 이는 흔히 말하는 **기술관료주의(technocracy)**와 일맥상통합니다.

**기술 엘리트주의와 전문가 통치** – 야빈이 구상한 이상사회에서는 **기술 엘리트와 전문가 집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민주주의를 통한 **대중의사 결정의 비합리성**을 비판한 그는, 그 대안으로 **전문성에 기반한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sup>33</sup> <sup>34</sup>. 이를테면 앞서 언급한 주식회사 국가 모델에서, 주주는 이사회를 선출하되 실무 통치는 경영 전문가에게 맡기는 구조를 상정한 것은 **전문 기술관료가 국민을 대신해 더 나은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sup>35</sup> <sup>18</sup>. 야빈은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처럼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념 논쟁보다 성과와 효율을 중시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sup>36</sup> <sup>37</sup>. 따라서 선거와 정당정치는 불필요한 분열을 낳는 소음일 뿐이며, 이를 없애고 **임명직 중심의 능력주의적 통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up>38</sup>. 그의 비전에 따르면, **기술기업 CEO 출신의 통치자는** 장기적 안목으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등용**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sup>39</sup> <sup>40</sup>. 이런 체제에서는 행정 절차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어 관료적 비효율과 비용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sup>41</sup>. 예컨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성과 지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식입니다 <sup>34</sup>. 요컨대 야빈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 혁신을 통치 철학의 중요한 요소로 여겼으며, 기술 발전이 제대로 활용되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권위주의**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에 대한 시각** – 야빈의 글에서는 인공지능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그의 **기술 일반에 대한 철학**을 통해 간접적인 견해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술 진보가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누가 통제하느냐**를 핵심 문제로 삼았습니다. 만약 유능한 엘리트가 권력을 된다면 AI와 자동화는 국정 운영의 도구로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무능한 다수가 휘두르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빈은 미래 정치에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집단이 별도의 도시국가를 건설하여 기존 국가로부터 탈출(Exit)**하는 시나리오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sup>42</sup> <sup>43</sup>. 그의 2008년 구상인 “**패치워크**”는 훗날 발라지 스리니바산 등이 제창한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 개념과 맥을 같이 하는데, 이는 첨단 기술과 암호화폐 등을 활용해 **법과 규제를 우회한 스타트업 국가**를 세우는 구상입니다 <sup>44</sup> <sup>45</sup>. 야빈의 아이디어는 이처럼 **기술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병렬 사회**를 예견했고,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일부 억만장자들은 **특별자치구역(charter city)**이나 “**프리덤 시티**” 등의 이름으로 이러한 도시 건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sup>43</sup> <sup>46</sup>. 이는 AI와 자동화 기술이 탈중앙화된 권력 구조를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한편, 기술 발전이 **노동시장과 계급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야빈은 상당히 냉소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관찰을 남겼는데, 이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정리하면, 커티스 야빈은 **기술을 통한 사회 개혁에 강한 관심**을 보인 사상가로서, 정부를 **소프트웨어처럼 재설계하고 기술 엘리트가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기술관료주의적 세계관**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AI와 자동화도 **유능한 권위** 하에서는 사회를 풍요롭게 할 도구이지만, **무능한 평등주의와 결합되면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함의를 남겼습니다. 그의 철학은 오늘날 **실리콘밸리 기술우위주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하며**, 실제 일부 기술기업인들의 **탈국가적 실험**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up>44</sup> <sup>43</sup>.

### 3. ‘노동 이후 사회’에 대한 야빈의 시각: 자동화, 생산, 계급 재편

**자동화와 노동수요의 역설** – 현대 사회에서 **기술 발전은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간 노동의 필요성을 감소시킵니다**. 야빈은 이러한 추세가 가져올 사회적 위기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기술 발전이 진행될수록 모든 산업 분야에서 노동 수요가 감소하며, 심지어 고급 기술자 직군마저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sup>47</sup>. 실제로 왓츠앱(WhatsApp) 같은 서비스가 불과 수십 명의 엔지니어로 전세계 수억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처럼, **디지털 기술은 소수 인력으로 거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sup>48</sup>. 그 결과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잉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야빈은 아무리 건강한 성인이라도 “**긍정적 한계생산성(positive marginal product)**”를 갖지 못하는, 말하자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sup>47</sup>. 그는 이러한 **기술자본주의의 최종 귀결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대량 살육’**이라고 강한 표현으로 경고했는데, 산업이 떠나 황폐해진 미국 중서부 러스트 벨트 지역의 몰락을 그 예로 들며, “**히로시마가 오늘날 디트로이트보다 오히려 나아 보인다**”는 냉소까지 곁들였습니다 <sup>47</sup>. 요컨대 자유방임적 경제 논리 아래에서는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계층이 사회적으로 퇴장당하고**, 극단적으로는 **사회적 생존 자체가 위협 받는 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노동 수요 창출을 위한 반동적 처방**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야빈은 의외로 **고전적 대응책**에 주목합니다. 그는 **자유무역과 기술진보로 무제한 효율을 추구한 20세기형 경제학**을 비판하고, “**노동 수요를 인위적으로라도 창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칩니다. 구체적으로, **옛 기술을 제한하고 무역을 통제하는** 등의 루디즘(Luddism)적·중상주의(mercantilism)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sup>49</sup>. 예를 들어 **섬유 산업의 자동화를 일부러 제한함으로써 수공예 직물 생산 같은 고품질 장인 노동의 시장을 만드는** 식입니다 <sup>49</sup>. 이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무의미한 실업자나 복지 수혜자**로 남을 인력이 **숙련 장인으로 거듭나 존엄성 있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sup>50</sup>. 물론 이러한 정책은 전통적 경제학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미친 짓**”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야빈은 **인간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경제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sup>49</sup> <sup>47</sup>. 그는 19세기 이전의 경제사상가들이 “**모든 소비는 생산자의 인간 노동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원리를 중시했다고 소개하면서 <sup>51</sup>, 현대에도 **완전고용이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사회 안정과 개인 존엄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야빈의 표현을 빌리면 “**상품은 소비자에 맞춰지고, 일은 노동자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인데 <sup>52</sup>, 이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능력의 한계까지 일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노동 존중관**을 담고 있습니다.

**계급 구조와 복지에 대한 태도** – 야빈은 현대 **복지국가나 하울뿐인 일자리로 사람들을 부양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괜한 종이를 돌리는 가짜 직업(bullshit job)**”에 종사하느니 차라리 숙련 직업인을 양성하라고 주장했고 <sup>53</sup>, 생산활동 없이 소비만 하는 **복지 수혜자**로 사람들을 남겨두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sup>50</sup>. 이는 그의 **엘리트주의적 시각**과도 연결되는데, 야빈은 사회를 움직이는 **소수 유능층과 그렇지 못한 다수 대중의 구분**을 기

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새로운 체제는 대중을 도태시키지 말고 품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군주의 통치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번영(*salus populi*, 국민의 건강/안녕이 최고의 법)이라고 강조하면서 <sup>54</sup>, **진정한 애국 군주라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자산으로 대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sup>55</sup> <sup>56</sup>. 다시 말해, 야빈이 구상하는 권위주의 체제는 표면적으로는 반민주적이지만 궁극적으로 **국민 다수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일종의 애민주의를** 내포합니다. 이는 자동화로 인한 노동계급의 몰락을 방지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주장과 맥이 달아 있습니다. 그는 기술이 진보하더라도 “**유능한 정권이라면 인간 자산(human assets)**을 진심으로 아끼고 기르려 할 것”이라고 말하며, 20세기 전체주의 정권들이 저지른 대중 학살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sup>57</sup> <sup>58</sup>. 대신 각 계층과 문화집단이 자기 방식대로 존중받으며 공존하는 다원주의 (과거 오스만제의 밀레트 제도에 비유)를 옹호했고 <sup>59</sup>, 특정 집단(예: 글로벌 엘리트나 소수자 집단)이 다른 집단을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sup>60</sup>.

“**노동 이후(post-work) 사회**”에 대한 암시 – 야빈은 자동화로 **인간 노동의 비중이 급감하는 미래**를 직접 “**노동 이후 사회**”라는 용어로 부르지는 않았으나, 그의 저술 곳곳에서 그런 미래상에 대한 함의가 드러납니다. 요컨대 그는 **진보진영 일각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UBI)**이나 “**놀고 먹는 사회**”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일하지 않고 부를 배분받는 대중은 장기적으로 무기력하고 위험한 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그런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sup>47</sup>. 대신 **인위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일자리와 생산 활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안정과 공동체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좌파적 맥락의 “**노동 해방**”과는 정반대로, **노동의 재신격화**라고 부를 만한 접근입니다. 궁극적으로 야빈은 **계층 서열이 존재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으며, 아무 쓸모 없는 존재로 취급받는 국민이 대거 발생하는 사회는 군주제이든 공화제이든 실패한 사회라고 보았습니다 <sup>47</sup>. 그의 이러한 입장은 현대 자본주의의 계급 재편 논의와도 통하는 바가 있는데, 오늘날 일부 우파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국가주의적 산업정책이나 탈세계화**와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실제로 야빈은 미국의 무역 정책이 **지나치게 자유방임적**이라며 “뉴욕에서 상하이 가나 뉴욕에서 리우 가나 별 차이 없다”고 풍자했고, 미국이 “**자유무역 지옥**”에 빠져 산업기반을 잃었다고 냉소했습니다 <sup>61</sup>. 이는 그가 **자국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사회 구조 재편**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커티스 야빈은 기술 발전으로 야기될 **탈노동 시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과거로부터의 반동적 교훈** – 기술억제, 무역통제, 완전고용 지향 – 등을 꺼내든 독특한 사상가이며, 노동의 종언 앞에서 국가가 적극 개입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sup>49</sup> <sup>47</sup>.

## 4. 야빈의 현재 활동: 최근 블로그, 인터뷰, 팟캐스트, Urbit 프로젝트

**블로그와 저술 재개** – 야빈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Unqualified Reservations*라는 블로그에 방대한 글을 올리며 이념 활동을 했고, 한동안 잠복기에 들어갔습니다 <sup>62</sup>. 그러나 2020년대에 들어 다시 공개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그는 Substack 플랫폼에 “**Gray Mirror of the Nihilist Prince**”라는 뉴스레터를 시작하여 정기적으로 에세이를 발표했고, 해당 연재물은 Substack 내 역사 부문 상위권 인기를 기록할 정도로 독자를 확보했습니다 <sup>63</sup>. 이 블로그를 통해 야빈은 자신의 이론을 현대 현실 정치 이슈에 적용한 글을 쓰고 있는데, 예컨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나 사회 혼란**에 대한 촌평을 하거나, 심지어 가벼운 개인 광고를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sup>64</sup> <sup>65</sup>. 그의 글은 여전히 도발적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대학가 “**취업빙자 사상검증**” 사건에서 정부가 사복 이민단속 요원을 투입한 조치를 **도의적 관점이 아니라 효율 관점**에서 비판하는 등 특유의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sup>66</sup>. 이는 그가 주류 보수진영과도 궤를 달리하는, **매우 독자적인 논리**로 현안을 해석함을 보여줍니다.

**인터뷰와 팟캐스트 출연** – 야빈은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우파 매체와 주류 매체에 모두 등장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초 뉴욕타임스 산하 팟캐스트 “**The Daily**”에서 그와의 인터뷰 에피소드가 방송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sup>67</sup>. 여기서 그는 공개적으로 “**미국 민주주의는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고, 공화당 유력 인사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경청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sup>68</sup> <sup>69</sup>. 이 인터뷰를 계기로 야빈은 더 이상 음지의 필명이 아닌 **실명 인물**로 대중에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각종 우파 팟캐스트 순위에도 적극적입니다. 뉴요커 보도에 따르면 야빈은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 블로그, 오디오 프로그램 등에 초대손님으로 **빈번히 출연**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해왔으며, **사교 모임**도 가리지 않고 참석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sup>70</sup>. 실제로 야빈은 2021년 전후부터 극우 성향 팟캐스트와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나서며, 그 영향력이 오프라인 정치권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sup>71</sup>. 예컨대 2021년 한 보수 팟캐스트에 출연한 JD 밴스 (당시 벤처투자자, 훗날 상원의원)는 “**모든 행정관료를 몰아내고 우리 사람으로 교체하라**”는 야빈의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언급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sup>72</sup>. 야빈 본인도 이런

언급에 고무되어 활동을 이어갔으며, 2025년에는 뉴요커 지에 의해 “미국을 전복하려는 음모의 설계자”라는 제목의 프로필 기사까지 실려 주목받았습니다 <sup>73</sup>.

**Urbit 프로젝트** – 야빈의 기술 프로젝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빗(Urbit)”입니다. 2013년경부터 본격화된 Urbit는 야빈이 설립한 TLON사에서 개발한 분산 컴퓨팅 플랫폼으로, 인터넷상의 “디지털 공화국”을 구현하려는 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sup>74</sup>. 야빈은 기존 인터넷이 중앙집중적이고 익명성에 의존한다고 보고, 사용자 각자가 고유한 영구 ID(행성)를 갖고 분산 네트워크 위에서 자치적으로 통신, 협업하는 새로운 컴퓨팅 환경을 구상했습니다. 이는 그의 정치철학과도 통하는데, 중앙 권위 없이 독립된 노드들의 연합체라는 Urbit 개념은 앞서 말한 패치워크 주권체의 디지털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빈은 Urbit를 두고 “1000년은 지속될 새로운 디지털 아테네”라 부르며 엘리트들이 모여 새로운 공적 담론장을 구축할 플랫폼으로 소개했습니다 <sup>75</sup>. 최근 그의 Substack 글에서도 “Urbit를 엘리트 사교클럽처럼 홍보”하려는 구상이 드러나는데, 기존 소셜미디어를 벗어난 지식인 커뮤니티로서 Urbit를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sup>76</sup>. 이 프로젝트는 피터 틸, 안드리슨 호로위츠 등 실리콘밸리 유력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투자를 받았는데, 이는 이들 기술 엘리트가 야빈의 대안 네트워크 비전에 공감했음을 보여줍니다 <sup>77</sup>. 야빈은 현재 직접 코딩에 참여하기보다는 전략가 겸 홍보대사로서 Urbit의 철학을 전파하고 있으며, Urbit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사상을 실험적으로 구현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는 가상공간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질서가 현실 정치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활동과 영향** – 야빈은 학계나 싱크탱크에 속하지 않지만, 여러 우파 지식 네트워크에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2025년 9월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헤리티지 재단-다뉴브 연구소 주최 지정학 회의에서 연설하는 등 국제 보수 진영 행사에도 초청되었고 <sup>78</sup>, 국내에서는 국가보수주의 콘퍼런스(NatCon) 등 새로운 우파 흐름의 이벤트에 자주 언급되는 이름입니다. 이러한 행보는 그가 한때 “틸-버스(Thiel-verse)의 궁정 철학자”로만 불리던 비공식 전략가에서, 이제는 공개 무대에 등장하는 사상가로 변모했음을 보여줍니다 <sup>79</sup>. 특히 2024년 미국 대선 정국을 전후해 그의 아이디어가 공화당 강경파 인사들의 담론에 나타나면서, 야빈은 실질적인 정책 설계자 혹은 예언자로서 주목받는 중입니다 <sup>80</sup>. 정리하면, 현재 커티스 야빈은 온라인 저술, 미디어 출연, 기술 프로젝트를 삼박자로 활발히 수행하며, 자기 사상의 영향을 현실에 투영하려는 심층 활동가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 5. 야빈과 연관된 인물들 및 사상적 네트워크

야빈의 영향력은 그의 사상과 친연성을 지닌 기술·금융 엘리트, 우파 지식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는 피터 틸(Peter Thiel)을 비롯한 실리콘밸리 거물들과 교류해왔고, 닉 랜드(Nick Land) 등 유럽 신우파 이론가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sup>81</sup> <sup>82</sup>. 뉴요커는 그를 두고 “틸 제국(Thiel-verse)의 궁정철학자”라고 묘사했는데, 이는 억만장자 투자자 피터 틸을 중심으로 한 비정통 엘리트 모임에서 야빈이 사상적 멘토로 여겨졌음을 의미합니다 <sup>83</sup>. 아래 표는 야빈과 주요 인물들의 관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인물	야빈과의 관계 및 역할
피터 틸  (Peter Thiel)	억만장자 투자자, 페이팔 공동창업자. 야빈의 블로그를 초창기에 읽고 교분을 쌓은 친구 겸 후원자로, 야빈의 스타트업 TLON(Urbit)에 투자한 바 있다 <sup>84</sup> . 틸은 2009년 “더 이상 자유와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없다고 믿는다”라고 썼을 만큼 야빈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드러냈고 <sup>85</sup> , 2016년 미 대선에서 실리콘밸리 인사 중 선구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여 테크 엘리트 우파 전향의 흐름을 이끌었다. 야빈은 틸을 자신의 사상을 이해하는 대표적 기술 엘리트로 여겼으며, 틸 또한 한때 야빈과 연결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좌파들은 설령 사실이어도 이런 음모 연결고리를 믿지 않을 것”이라며 둘의 연계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sup>86</sup> .

인물	야빈과의 관계 및 역할
발라지 스리니바산 (Balaji Srinivasan)	벤처 투자자 겸 기술기업인, 코인베이스 전 CTO. 안드리슨 호로위츠(A16Z) 파트너 시절 야빈의 글을 접하고 친분을 쌓은 인물로, 피터 틸과 함께 TLON에 투자하기도 했다 <sup>76</sup> . 발라지는 2022년 저서 『네트워크 국가(The Network State)』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기술로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구상을 제시했는데, 이는 야빈의 “패치워크” 개념과 크게 상통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sup>44</sup> . 실제로 테크폴리시 분석에 따르면 발라지의 아이디어 상당 부분이 야빈의 선구적 작업을蹈았다고 하며, 야빈 자신도 Urbit을 통해 발라지식 네트워크 국가의 밑바탕을 마련하려 했다 <sup>44</sup> <sup>75</sup> .
닉 랜드  (Nick Land)	영국 출신의 철학자이자 이론가. 1990년대 사이버펑크 가속주의로 유명했으며, 2010년대에는 야빈과 함께 신반동주의 사상을 정초한 인물로 평가된다. 랜드는 2013년 “다크 계몽(The Dark Enlightenment)”이라는 에세이 연재를 통해 야빈의 민주주의 비판을 발전시켰고, 백인 민족주의까지 우아르는 급진 우파 이론을 전개했다 <sup>5</sup> . 그는 “신반동주의는 향후 등장할 대중주의적 알트라이트(altright)를 예언적으로 경고한 것이었다”라고 회고하며, alt-right와 NRx는 결이 다르지만 야빈의 이론이 하나의 지적 토대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sup>81</sup> . 야빈과 랜드는 직접 협업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글을 참조하며, 반동적 엘리트주의와 기술결정론이라는 공통분모를 공유했습니다.
마크 안드리슨  (Marc Andreessen)	넷스케이프 창업자 출신의 실리콘밸리 유명 투자자(A16Z 공동설립자). 피터 틸과 더불어 야빈 사상의 열혈 독자로 알려져 있다. 뉴요커 보도에 따르면 안드리슨은 비공식 정부자문모임에서 야빈을 “좋은 친구”라고 칭하며, “통제 불능의 관료제를 창업자 정신으로 다시 다잡아야 한다”는 야빈의 주장을 인용했다고 한다 <sup>82</sup> . 그는 2023년 “기술낙관주의 선언”을 발표하며 反워크·反규제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이러한 흐름은 야빈식 엘리트 통치론과 맥을 같이 한다는 평가가 있다. 안드리슨은 또한 틸, 발라지 등과 함께 프로노모스(Pronomos) 벤처펀드에 출자하여 각국에 민영 차지도시(차터 시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원했는데 <sup>43</sup> , 이는 야빈의 패치워크 이상을 현실에서 모색하는 실험으로 볼 수 있다.
제이디 밴스  (J.D. Vance)	벤처캐피털 출신의 미국 정치인(현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피터 틸의 지원을 받아 정치에 입문한 그는 야빈의 이념을 정치권에 전파한 인물로 꼽힙니다. 밴스는 개인적으로 야빈과 친분이 있으며 <sup>83</sup> , 2021년 한 팟캐스트에서는 “행정부의 중간 관료를 전원 해고하고 우리 측 인사로 채워넣어야 한다”는 야빈식 발상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sup>72</sup> . 이후 실제로 2022년 밴스가 상원에 입성하고,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와 가까워지면서, 그의 반(反)행정국가 노선은 야빈 이론의 정책적 응용 사례로 거론됩니다 <sup>72</sup> . 야빈은 밴스를 두고 “시대정신을 체현한 남자”라고 평가하며, 그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가 제도권에 스며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론 머스크(Elon Musk)처럼 최근 우파 성향을 강화한 거대 기술기업인이나, 틸과 가까운 데이비드 섹스(David Sacks), 팔머 럭키(Palmer Luckey) 등도 넓은 범주의 실리콘밸리 신우파 흐름에 속하며 종종 야빈과 간접적으로 연결됩니다 <sup>46</sup> <sup>84</sup>. 예컨대 머스크는 2022년 말부터 트위터(X)에서 반체제적·반진보적 발언을 쏟아내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모습으로 변모했는데, 프랑스 언론은 이를 “실리콘밸리 우경화” 흐름의 일부로 분석하며 그 배경에 야빈과 틸 등이 주도한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반란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sup>85</sup> <sup>86</sup>. 또한 전 백악관 전략가 스티브 배넌(Steve Bannon) 역시 야빈에게 관심을 보여, 2016년 야빈과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기도 했습니다 <sup>87</sup>. 배넌은 2025년 한 행사 연설에서 “행정국가의 황혼”을 언급하며 사실상 야빈의 기조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고 <sup>88</sup>, 이처럼 정치권 실력자와 기술부호들이 어우러진 네트워크 속에서 야빈의 아이디어는 실행 전략으로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상적 네트워크의 의미** – 커티스 야빈과 그 주변 인물들의 연결망은 현대 미국 정치에서 신흥 우파 지식인-후원자 연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기존 워싱턴 주류와 거리를 두고, 인터넷과 민간자본을 무기 삼아 반체제적 구상을 현실화하려는 공통된 지향을 갖고 있습니다 <sup>89</sup>. 야빈은 이러한 네트워크의 이념적 구심점 역할을 하며, 그의 급진적 제안들은 틸이나 안드리슨 같은 자본가들의 지원 아래 현실 실험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밴스나 배넌 같은 정치행위자의 담론으로 전이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야빈-틸-발라지-랜드로 이어지는 이론가와 후원자들의 지적 생태계는 21세기 미국의 “반체제 엘리트” 운동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sup>78</sup> <sup>84</sup>. 이들은 민주주의와 글로벌리즘에 대한 회의를 토대로 기술

**중시, 엘리트 통치, 공동체 재편**을 모색하며, 향후에도 이들의 행보는 서구 정치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참고문헌 (References):

- Ava Kofman, "Curtis Yarvin's Plot Against America," The New Yorker, June 2, 2025 7 11 76 72 등.
- James Rosenberg, "Curtis Yarvin: Postliberalism with Computational Characteristics," IWM Post, No. 136 (2023) 16 18 13 등.
- The Atlantic, "What is the NRx Movement? Behind the Internet's Dark Anti-Democracy Movement," Feb 2017 62 29 등.
- Curtis Yarvin, "Policies of the Deep Right," Gray Mirror Substack, 2023 49 47 .
- TechPolicy Press, "Trump's Gaza Fantasy and the Network State...," Nov 17, 2023 44 43 등.

---

1 2 3 6 7 8 9 10 11 28 63 64 65 66 70 71 72 73 74 75 76 78 79 80 82 88 Curtis Yarvin's Plot Against America | The New Yorker

<https://www.newyorker.com/magazine/2025/06/09/curtis-yarvin-profile>

4 12 13 14 15 16 17 18 19 20 30 31 32 77 Curtis Yarvin: Postliberalism with Computational Characteristics | IWM WEBSITE

<http://www.iwm.at/publication/iwmpost-article/curtis-yarvin-postliberalism-with-computational-characteristics>

5 29 62 81 87 What is the NRx (Neoreaction) Movement? - The Atlantic

<https://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7/02/behind-the-internets-dark-anti-democracy-movement/516243/>

21 22 23 24 25 26 27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Policies of the deep right - by Curtis Yarvin - Gray Mirror

<https://graymirror.substack.com/p/policies-of-the-deep-right>

33 34 35 36 37 38 39 40 41 The New Monarchy: Exploring Curtis Yarvin's Neo-Totalitarian Vision

<https://www.aiu.edu/blog/the-new-monarchy-the-neo-totalitarian-proposals-of-curtis-yarvin/>

42 43 44 45 46 84 89 Trump's Gaza Fantasy and the Network State: The Tech-Fueled Future of Privatized Sovereignty | TechPolicy.Press

<https://www.techpolicy.press/trumps-gaza-fantasy-and-the-network-state-the-tech-fueled-future-of-privatized-sovereignty/>

67 Curtis Yarvin on the End of American Democracy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NcSil8NeQq8>

68 'The Interview': Curtis Yarvin Says Democracy Is Done. Powerful ...

<https://open.spotify.com/episode/7pKBBCcR1Kj42gcoGdGlJk>

69 Curtis Yarvin Says Democracy Is Done. Powerful Conservatives Are ...

<https://podcasts.happyscribe.com/the-daily/the-interview-curtis-yarvin-says-democracy-is-done-powerful-conservatives-are-listening>

83 JD 밴스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JD\\_%EB%B0%B4%EC%8A%A4](https://ko.wikipedia.org/wiki/JD_%EB%B0%B4%EC%8A%A4)

85 86 How America's tech right came to power

[https://www.lemonde.fr/en/international/article/2024/11/15/how-america-s-tech-right-came-to-power\\_6732989\\_4.html](https://www.lemonde.fr/en/international/article/2024/11/15/how-america-s-tech-right-came-to-power_6732989_4.html)